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261-273  
<https://doi.org/10.29212/mh.2022..123.2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예정된 전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 그레이엄 앨리슨 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

두진호\*

본고는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집필한 『Destined for War』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서평이다. 본 서평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예정된 전쟁』과 연계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오래된 전쟁과 예정된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의<sup>1)</sup> 역작(力作)인 『예정된 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1) 그레이엄 앨리슨은 하버드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뒤 같은 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인재양성에 힘을 썼고,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하버드대학교의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및 국방정책 분석가로 핵확산과 테러리즘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략경쟁’의 치명성을 응용역사학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을 제안한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분석틀로 접근한다. 투키디데스가 전쟁은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면, 그레이엄 앨리슨은 비판적 입장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담대한 용기와 집단지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를 인용해 지난 500여 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16번 발생했고, 이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을 투키디데스 함정 파일의 17번째 사례로 특정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을 제안한다. 1부에서는 중국의 부상 과정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지난 500여 년이 갖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미중 관계를 검토한다. 3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전망한다. 4부에서는 전쟁의 문턱에서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평화의 문을 열어줄 열두 개의 열쇠를 제안한다.

## 2.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미중 전략경쟁

저자는 기원전 5세기 초 발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의 대응이 전쟁 가능성을 필연성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투키디데스의 현실 인식은 훗날 신현실주의 논점을 구성하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레이건과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장관 특보, 국방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theory)'<sup>2)</sup> 개념으로 발전했다.

투키디데스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기존의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밝힌다.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구조적 압박이 갖는 역학은 '신흥 세력 증후군'과 '지배 세력 증후군'의 경쟁적 역동성을 의미한다.<sup>3)</sup> 상호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두 개의 증후군은 전쟁의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자 미중 전략경쟁을 통찰하는 핵심적인 프리즘이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와 상대적으로 '긴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어 왔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갖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쟁이 갖는 '낮은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좁은 간극은 17번째 전쟁의 필연성을 상징한다.

저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2)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theory) 이론은 지배적인 강대국이 도전세력의 급속한 국력신장으로 상대적 국력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위협과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세력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힘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기존의 강대국은 자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신흥 세력과 기존 세력이 상대적 국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Glenn Palmer and Clifton T, "Power Transition, the Two-Good Theory, and Neorealism: A Comparison with Comments on Recent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July/September); 329-346.;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3) 신흥 세력 증후군은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이 높아진 자의식, 관심사 그리고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에 대한 권리의식에 초점을 맞추며 지배 세력 증후군은 전자의 거울상이 된다. 미국과 같은 기존 지배 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공포와 불안감을 보인다.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가 커지고 인정과 존중을 기대하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 세력은 신흥 세력을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신흥 세력 증후군과 지배 세력 증후군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미국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경제의 과반을 점유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의 세계 경제 점유율은 30%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30년 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세계 점유율은 1980년대 2%에서 2013년에는 18%로 급성장했으며, 2040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7년마다 두 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미국의 3배로 추정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는 단순히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역전현상을 의미한다. 2015년 중국 경제는 16주 만에 그리스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30년 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중국몽’은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시진핑은 2012년 두 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2010년과 비교하여 두 배 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적이고 부유하며 강력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만약 두 번째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세 배가 된다. 미국 GDP의 70%까지 육박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저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우발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17번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적대적 정체성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 두려움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요인은 갈등관계를 전쟁으로 유도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즉, 신흥 세력 증후군을 내재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의식이 높아지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상승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 욕구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배 세력 증후군에 익숙한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후퇴를 경험하게 되고, 중국의 군사굴기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공포 및 불안감 증대로 전쟁 구성 요건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또 다른 뇌관은 ‘문명의 충돌’이다. 미국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와 자유라면 중국의 그것은 질서이다. 미국은 국제 질서 안에서 ‘일등국’을 지향하지만 중국은 ‘우주의 중심’을 추구한다. 미국은 공화정에 기초해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중국은 반응적 권위주의가 습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이고 영원한 것을 선호한다.

저자는 중국의 신흥 세력 증후군과 미국의 지배 세력 증후군의 충돌은 예정된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미중 간 작은 갈등의 불씨가 우발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중 전략경쟁이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선 네 번의 사례가 주는 열두 개의 열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비록 미중 전략경쟁이 극도의 긴장감을 내재하며 전쟁의 조건을 충족해가고 있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갖는 선택편향을 비판하며 전쟁의 필연성을 부정한다. 저자는 전쟁의 필연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시키는 담대한 용기와 실천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3. 예정된 우크라이나 전쟁

투키디데스 함정 파일의 17번째 사례는 미중 전략경쟁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레이엄 엘리슨의 예상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빛나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갖는 일반적 특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동태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저자의 주장과 배척되는 사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오래된 현실주의가 자유주의를 밀어내고 향후 글로벌 안보환경의 주류를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레이엄 엘리슨의 『예정된 전쟁』은 논쟁의 대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뒤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푸틴 대통령이 밝힌 특별군사작전의 이유와 취지는 크게 NATO 위협으로부터 러시아 방어, 돈바스에<sup>4)</sup>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및 비무장화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북부, 북동부, 동부 및 남부 등 4개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군은 침공에 앞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국가 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교란했으며, 개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휘통제체계 및 공항 등 전쟁지휘 시스템과 국가 기반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

4)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의 루한스크주 및 도네츠크주를 총칭하는 명칭이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지역을 강제병합하면서 러시아계가 다수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 내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반정부군은 돈바스 전체 지역의 약 1/3을 점령하고 있었다. 5월 24일 기준,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80%를 점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개전 2~3일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망명을 위해 비상계획에 착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의지와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 확산, 그리고 대러 경제 제재 시행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미국과 NATO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9일 제77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NATO가 크림 지역에<sup>5)</sup> 공격을 준비하는 등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호전성에 경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사건이다. 5월24일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약 15,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국민 중 약 6백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90%는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

5) 크림(크림) 지역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지역으로 세바스토폴시와 크림 공화국을 총칭한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2022.5.23. 기준)



\* 출처 : [www.aljazeera.com/news](http://www.aljazeera.com/news)

이번 전쟁에서 지배 세력 증후군의 주체는 러시아이다. 하지만 신흥 지배 세력의 주체는 이번 전쟁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아닌 NATO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인용하는 일반적 사례들과 다른 경로를 갖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NATO의 진출선을 조정하기 위해 롤백(Roll-back)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방이 NATO의 확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NATO는 최소 2,000km 이상 동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이 색깔혁명을 기획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세력을 붕괴시키고 친서방 식민지 정권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고 비판한다.

우크라이나는 개헌을 통해 2019년부터 헌법에 유럽연합 및 NATO 가입 의지를 명문화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탈(脫)러시아 행보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과거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자 같은 동슬라브 민족을 구성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NATO가 진입한다는 것은 NATO의 진출선이 러시아의 국경과 맞대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지배 세력으로 남고자 했다. 반면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진출선을 확장했다.

그레이엄 엘리슨은 특정 갈등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및 두려움, 그리고 명예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저자는 “아테네의 팽창이 스파르타 동맹국들을 잠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스파르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전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투키디데스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러한 주장에 비춰보면, 과거 동맹이나 다름없던 우크라이나가 NATO에 잠식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해관계와 두려움의 정점 상황을 마주한 것이다.

투키디데스가 주장하는 전쟁의 필연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하면 NATO가 확장할수록 러시아의 우려도 증폭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길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 NATO는 가치 동맹의 연대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유라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관철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불안은 피해망상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투키디데스 함정의 17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NATO 등 서방은 전쟁은 곧 재앙을 뜻한다는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세력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에서 최소한 러시아는 가능한 선택지 중 가장 덜 나쁜 쪽이 폭력이라고 결론짓게 되었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필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에 국제사회는 12개 이상의 평화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러시아와 미국, NATO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사회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했다.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와 프랑스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 또한 러시아를 방문하여 외교적 해법을 통한 사태 해결에 주력했다. 여기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서방 주요국의 올림픽 보이콧 사태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투키디데스의 함정만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다.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투키디데스의 선택편향을 비판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주장, 그리고 평화로 가는 열두 개의 열쇠가 무의미해지는 위기의 순간이다.

#### 4. 글로벌 안보환경의 결정적 변화와 한반도

그레이엄 엘리슨은 예정된 전쟁의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개인 혹은 집단지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15세기 말 해상교통로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갈등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신의 대리자인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중재로 양측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이라는 신사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연합의 주도 국가로 성장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낙인이 찍힌 까닭에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군사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비무장화 및 비군사화를 강요받아 왔다. 또한 독일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핵우산’은 독일의 군사적 잠재력을 제거함으로써 주변국을 안심시켰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상호의존성 심화는 우호적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그레이엄 엘리슨이 제안하는 의미 있는 평화의 열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NATO를 중재할 권능자를 찾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UN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UN은 지역 갈등을 관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상호의존성의 관행을 공유한다.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유럽연합의 비중은 과반에 육박한다. 유럽연합은 매년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NATO 회원국의 절대 다수와 러시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호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공유해온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기여한 세계화의 흐름이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전략에 맞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제로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는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레이엄 엘리슨의 가설도 부정될 위기 상황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극한의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공존 체제가 유지된 것은 양국이 핵보유국이라는 배경이 작용한다. 핵무

기가 갖는 파괴적 본능 때문에 핵을 보유한 강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핵 모험주의로 국제사회를 겁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안보환경의 결정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17번째의 예정된 전쟁을 경고했지만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뼈아픈 교훈을 미중 전략경쟁에 능동적으로 투영해야 한다.

그레이엄 엘리슨은 냉전의 그림자가 포위하고 있는 한반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 파일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형성된 과정과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성장 경로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투키디데스 함정 사례 파일 중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비록 한국이 북한 경제에 비해 50배 이상의<sup>6)</sup>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세력전이를 결정짓는 전략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에 이어 19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0여 년간 16번의 예정된 전쟁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19번째 예정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열두 개 평화의 열쇠 효력이 약화된 결정적 국면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전쟁 참전국 모두는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키려던 것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독일 황제는 축출당했으며, 러시아의 차르 역시 왕좌에서 내려왔다. 프랑스는 한 세대 동안

6) 2020년 명목 GNI 기준으로 한국은 1,948조원, 북한은 35조로 추산되며, 무역 총액 기준으로 한국은 9,801억달러 북한은 8.6억달러 수준임.

피를 흘렸고, 영국의 경제적 부와 젊은 세대가 희생됐다. 평화의 문을 여는 열두 개의 열쇠가 중요한 이유이다. 전쟁의 참상과 후폭풍을 뒤늦게 자각한 테오발트 폰 베타만홀베크 독일 총리의 탄식은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갖는다. 18번째 그리고 19번째 예정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